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10.01~26.10.31)

- 2027년도·2028년도 경쟁참가자격심사(공사·건설컨설턴트)의 통합접수사이트를 공개 [10/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다가오는 2027년 및 2028년의 경쟁참가자격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 접수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음. 이번 조치는 건설공사 및 측량, 건설 컨설턴트 등 관련 공공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무려 24개에 달하는 관련 발주기관(국가 14개, 고속도로회사, 독립행정법인 10개)에 단 한 번의 입력으로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일원화 접수 사이트가 오는 11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임
 - 과거 각 기관별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접수 시스템 개편 행사의 핵심적인 디테일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통합접수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가발주기관은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회계과 소관기관, △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 △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 법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환경성, △ 방위성, △ 최고재판소, △ 내각부의 14개 기관임. 고속도로회사, 독립행정법인은 △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 한신고속도로주식회사, △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주식회사, △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 일본하수도사업단, △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송시설정비지원기구의 10개 기관임
 - 신청 과정에서 세금납부증명서와 경영사항심사의 연간평균완성공사고를 세부구분 공종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2025년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 대해 [10/2]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택지건물거래업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은 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시행상황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음
 -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한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동향과 더불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처분 및 행정지도 실시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음
 - 발표된 세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말 기준 전체 택지건물거래업자 수는 총 133,727개사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며 무려 1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되었음. 동시에 시장 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면허 취소, 업무 정지, 지시 등의 감독처분 건수는 총 163건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났으며, 권고 등의 행정지도 역시 768건으로 29.7%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

- 새롭게 택지건물거래사로 등록한 인원이 약 3만 4천 명에 달하며, 전체 누적 등록자 수는 약 124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6년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비 모델사업 제안의 채택 [10/2]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거주안정을 위한 새로운 사업 채택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발표는 임대인들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임대할 때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주거지원법인 등의 활동을 돕는 2026년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비 모델사업(다주체 연계형)」의 최종 제안이 확정되었음.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적인 공모 행사를 실시하여 총 46건의 관련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음. 이후 학식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5건의 선도적인 사업을 채택하는 디테일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음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비 모델사업(다주체 연계형)은 임대인, 집세 채무보증업자, 주거지원법인 등 여러 주체가 협력(다주체 연계)하여 거주자를 돕는 것임. 예를 들어, 임대인은 거주자와 종신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세 채무 보증업자는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주거지원법인은 거주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보는(지켜보기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됨. 이처럼 3자가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간의 불안감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이러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사업검토, 시범운영, 보급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됨. 지원 금액은 정액제로 1개 사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엔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임.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이 기간 내에 착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보조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의 정보제공 요청에 협력해야 함. 또한, 주거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반드시 단독이 아닌 복수의 사업자나 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해야만 함

□ 건설 마스터·건설 주니어 마스터를 표창 [10/7]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10월 7일 우수한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건설기능자를 기리는 표창 계획을 발표했음. 이번 행사는 건설산업 최일선에서 직접 시공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평가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기획되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뛰어난 기술력으로 후진 양성에 공헌한 자를 건설마스터로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해왔음. 또한 2015년부터는 청년 기능자들에게 기술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자를 건설 주니어 마스터로 지정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음
- 올해 표창 대상자로는 후진 지도 및 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446명이 건설 마스터로 최종 선정되어 이바야시 국토교통대신의 표창을 직접 받을 예정임. 이와 함께 장래가 유망한 청년 기능자 120명이 건설 주니어 마스터로 발탁되어 스도 부동산·건설경제국장 표창을 수여받게 됨
- 본 표창 수여식은 다가오는 2026년 10월 14일 13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도쿄도 분쿄구에 위치한 분쿄 시빅홀 대홀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될 예정임

□ **건설산업에 관한 작문 공모(국토교통대신상) 표창 [10/7]**

- 일본 국토교통성과 건설산업 인재확보·육성 추진협의회는 매년 건설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문 공모를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인과 건축 및 토목학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장~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 및 고등학생 작문 공모를 각각 개최하였음. 이는 현장의 열정적인 마음을 전하고 건설산업의 업무를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배경에서 기획되었음
- 이번 공모에는 사회인 부문 509개, 고등학생 부문 881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음. 엄격한 심사 결과, 두 부문을 통틀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총 3개의 작품이 최고 영예인 국토교통대신상 수상작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이와 함께 각 부문별로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 5개 작품과 우수상 17개 작품도 선정되어 건설산업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공유하게 되었음
- 수상자들을 위한 국토교통대신상 표창식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전 11시, 중앙합동청사 3호관에 위치한 국토교통대신실에서 진행될 예정임
- 표창식 당일에는 국토교통대신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할 계획임.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분교 시빅홀에서 열리는 '우수시공자 국토교통대신 현장식전'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대신상 수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수상 작품을 낭독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음

□ **일본·미국·캐나다의 목조건축에 관한 기준과 연구에 대한 의견 교환 [10/8]**

- 1990년 미일 임산물협회의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일본·캐나다 건축전문가회의(BEC) 및 JAS 기술위원회(JTC)의 2026년도 회의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본 회의는 3개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목질 재료의 이용 촉진과 안전한 건축공법 보급을 위해 건축 기준 및 기술정보 등을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 이후, 일본에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열린 대면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음
- 이번 회의에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협회 관계자 등 대면 참석자 30여 명과 온라인 방청객 40여 명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음
- 각국의 주요 발표내용으로 일본은 주택 및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목조 오프사이트 건설 활성화 노력, 건축물 생애주기 탄소평가 정책, 목재 이용촉진을 위한 건축기준 합리화 및 임산물 JAS 개정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음. 이어 미국 측은 자국 내 Mass Timber 도입 현황과 오프사이트 공법을 통한 산업적·사회적 과제 대응 방안, 미국산 목재의 지역별 전과정 평가(LCA) 결과를 공유하며 기술적 발전상황을 제시했음. 캐나다는 정부차원의 목조건축 추진 시책과 조립식 목조건축 핸드북, 목재 제품의 탄소량 정량화 노력 등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정책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도쿄 도내에 위치한 중·대규모 목조 건축물에 대한 현장시찰이 진행되었음. 참가자들은 고층목조 집합주택과 준공시점 기준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사무실 빌딩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신 건축기술의 실제 적용사례를 확인했음. 이를 통해 3국은 목조 건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과 실무적 기준을 상호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건축생태계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지게 되었음

□ 2026년도 주요건설자재 수요 전망 산출 [10/9]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연간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요전망을 발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건설투자전망의 건축 및 토목부문 투자전망액과 자재별 원단위를 활용하여 추계한 2026년도 주요 건설자재 수요전망 결과를 지난 10월 9일 발표했음
- 이번 수요전망 결과에 따르면, 주요 5대 건설자재 중 시멘트, 레미콘, 보통강재 등 3개 품목의 수요가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며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음. 세부적인 품목별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시멘트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100만 톤, 레미콘은 1.2% 증가한 6,100만 m³, 보통강재는 1.1% 증가한 1,570만 톤으로 각각 집계되어 주요 인프라 및 건축수요가 건조함을 시사했음
- 반면, 목재의 경우 775만 m³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0.0%의 증감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아스팔트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7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어 주요 자재 중 유일하게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러한 국토교통성의 선제적인 자재 수요예측 데이터는 향후 관련 산업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국토개발 정책 집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건설현장의 미래를 만드는 건설분야 피지컬 AI 컨소시엄 회원 모집 [10/9]

- 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천 및 도로 등 토목분야 건설현장에 피지컬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분야 피지컬AI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산학관 연계를 위한 본격적인 회원모집을 시작했음. 이는 앞서 올해 9월에 공표된 '건설분야 피지컬AI 전략(중간정리)'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임. 특히 AI와 로봇틱스를 결합해 건설생산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업계 전반의 횡단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설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이번 컨소시엄 설립의 핵심 배경임
- 건설분야의 피지컬AI 컨소시엄은 2026년 9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건설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전략(중간 정리)」을 근거로, 이를 실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회원을 모집하며 발족되었음. 이 기구는 국토교통성이라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민간기업과 학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관 연계협의체임
- 컨소시엄은 건설현장에 센서와 AI를 결합해 기계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AI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설립되었음. 단순히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을 넘어, 국토교통성의 주도하에 데이터 호환성이나 안전기준 등 업계 공통의 규칙을 제정합니다. 더불어 건설기계 자율화나 인력작업 보조 등 세부과제별 프로젝트 팀을 꾸려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과 성과를 회원사 간에 공유하여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해결과 자동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 회원 모집은 관련 기업 및 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반회원과 프로젝트 회원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폭넓게 진행됨. 일반회원은 정보공유와 기술 수요조사 등에 협력하게 되며, 프로젝트 회원은 구체적인 기술 및 테마 검토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에 직접 참여하게 됨. 최초 회원 공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11월 6일 오후 5시까지이며, 모집 종료 이후인 11월 하순에는 전체 회원이 모이는 제1회 컨소시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6년 8월분) [10/13]**

- 2026년 8월 수주총액은 9조 9,578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4,897억 엔(전년동월대비 3.3% 감소)으로 5개월만의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4,681억 엔(전년동월대비 20.2% 증가)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함
- 원도급 수주액(6조 4,897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7,238억 엔(전년동월대비 7.5% 감소,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7,053억 엔(전년동월대비 3.7% 증가, 6개월만의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6조 4,897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7,238억 엔(전년동월대비 7.5%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3조 9,922억 엔(전년동월대비 2.5%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737억 엔(전년동월대비 1.6% 감소, 4개월 연속 감소)임

□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의 이활용 촉진을 위한 의견교환회 개최 [10/15]**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이활용 촉진을 위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행사는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 제3회 과제인 스마트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실시된 실증조사의 데이터 제공 및 실제 활용사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배경에서 기획되었음. 특히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데이터 인프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 연계 데이터의 확충 및 최신 갱신 내용이 상세히 보고될 계획임. 또한 SIP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진행 중인 에코시스템 사회실험 및 연계 실증조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 데이터제공 측면에 대해서는 도쿄대학 첸 특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는 △ 주식회사 포럼에이트, △ 주식회사 와이즈, △ 주식회사 JDSC, △ 국제항업주식회사가 발표를 진행함
- 이번 의견 교환회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면 온라인 웹 회의 형식으로 진행됨. 아울러 회의의 전 과정은 웹을 통해 일반에도 방청이 허용되어, 공공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접근성과 정보 투명성을 크게 높였음

□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보행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정비를 향한 현지 실증 [10/16]**

- 일본 국토교통성은 누구나 안심하고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그 배경에는 이동 경로상의 단차, 폭, 종단 경사 등 배리어(장벽) 정보와 배리어프리 시설 정보를 AI로 자동추출하여 휠체어 이용자나 로봇의 이동을 돕는 오픈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음
-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 정비의 효율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지실증에 협력할 단체를 공식적으로 공모하였음. 접수된 단체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오사카부 이케다시가 최종 현지 실증 단체로 선정되었음

- 이번에 선정된 오사카부 이케다시에서는 올해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현지실증 작업이 실시될 예정임. 실증기간 동안 AI기반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실제 보행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 정보를 신속하게 데이터화하는 기술적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국토교통성은 이케다시에서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최종성과를 정리할 계획임. 향후 정비된 데이터는 단차를 피한 경로 검색 및 안내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보행자와 로봇의 이동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임